

고려불화 전통 계승해 창작 불화로

김중우 작가 '불이색공전'
8월 19일부터 가나인사아트센터서

법화경보탑도 등 30여 작품 전시
'한복 입은 부처' 한국적 불교 표현
백제금동대향로 불화로 옮겨 주묵

"이 세상에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불보살님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닙니다. 부처는 우리를 한번도 떠난 적이 없죠. 전시 제목인 '불이색공'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줄인 말입니다. 공(空)만 있으면 인간의 마음을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색(色)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숨 쉬고 사는 것에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라고 김중우 작가가 '불이색공전(不二色空展)'을 주제로 8월 19일~25일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펼친다. 이번에 선보이는 30여 작품들은 2001년 여름에 시작한 '법화경서사보탑도'를 시작으로 15년간 제작된 작품들을 모았다.

작가는 '형상이 얽매이지 말고 자기 안의 부처를 꺼내어 그림을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좌우명을 걸고 일념으로 불화와 사경에 매진했다. "성(性)은 누구나 청정합니다. 그러나 곁에 두고도 모릅니다. 중생들은 하느님과 부처님의 계시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자기 마음의 부처, 자기 마음의 하느님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출가 생활을 경험하고 불화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에게 현상계와 절대계는 둘이 아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청정심을 유지하고, 절대계를 현상계로 옮겨놓으려



라고 김중우 작가가 '불이색공전(不二色空展)'을 주제로 8월 19일~25일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펼친다. 백제금동대향로를 작품으로 옮긴 '동방의 혼'

는 노력을 작가는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불이색공전'이 추구하는 이상이라 하겠다.

김중우 작가의 작품은 크게 고려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표현양식과 고법에 바탕해 작가의 새로운 세계를 표현한 양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표현양식은 큰 괴리감 없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법화경서사보탑도'는 일본에 남아있는 고려금니서사법화경보탑도를 재현한 작품으로 높이 380cm 폭 106cm에 2만 6천자의 글자로 탑을 완성해 냈다. "꼬박 13개월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작업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돋보기를 사용해야 했고 바닥에 엎드려서 불편한 자세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금방 허리에 무리가 왔습니다. 4개월이 지나니 전시

를 앞두고는 '동방의 혼'은 고창 선운사에서 본 고려시대 청동 지장보살상에서 영감을 얻어 불화에 적용했으며 '미륵반가사유상'은 같은 형상의 미륵상이 겹겹이 이어지게 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내 안에 있음을 말해준다.

'백제금동대향로'를 그림으로 옮긴 '동방의 혼'은 창조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향로에 표현된 오악사, 동물들, 낚시꾼, 악어, 호랑이, 말 타는 사람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불화로 재구성했죠. 백제금동대향로에 나오는 대상을 관람객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려는 의도도 담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의 후광(後光)은 별자리를 형상화한 만다라다. 이 별자리 그림은 조선시대 때 이성계의 명으로 제작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참고했다고. "허공법계 우주만물이 곧 부처이므로 비로자나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비로자나불 역시 좀 더 친근한 한복을 입혔죠."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는 김중우 작가. 그는 작품을 통해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닌 하나이며 자기 마음의 부처를 찾는 길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02)736-1020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부처님 일대기 뮤지컬로 감동 선사

무소의 뿔 제 4회 정기공연 건대 새천년홀서

7월 24일 저녁 건국대 새천년홀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법배, 국악,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찬불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무소의 뿔 제 4회 정기공연'은 무대와 객석 모두 열기로 가득했다. 800여 사부대중들은 때로는 박수로 때로는 함성으로 새롭게 선보인 찬불가를 예찬했다.

작곡가 이진구 씨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불교인인 내가 불교적인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가장 고민했다. 나의 목표는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예술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클래식 재즈 등에 한국적인 장르를 결합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작곡가 이진구 씨의 작품인 '부처님 뮤지컬-Under the Bohi Tree'의 일부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반왕의 꿈-엄마의 얼굴-출가의 결심-길 떠나는 너에게-듀엣(잇다르타와 야소다라)-7년의 기다림 등 여섯 파트를 선보여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정반왕에 바리톤 이상준, 어린 잇다르타는 조희재(아름불휘 단원)가, 성인 잇다르타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 야소다라 역에 뮤지컬 배우 방글아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엄마의 얼굴'에서는 어린 잇다르타 역을 맡은 조희재 양은 맑은 음색으로 세상을 연민하는 잇다르타의 모습을 훌륭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12살의 어린 잇다르타는 화살에 맞은 사슴을 치료해주고 엄마 사슴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미안해 사슴아, 자 이제 엄마에게 가라 저 나무 뒤에서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다시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마" 조 양은 잇다르타의 슬픔과 그리움을 훌륭하게 소화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진구 씨가 곡을 만든 이번 작품은 그의 아내 송연경 씨가 작사를 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작곡가 이진구 씨는 "9년 전부



'부처님 뮤지컬-Under the Bohi Tree'에서 어린 잇다르타 역을 맡은 조희재 양의 공연 장면.

터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뮤지컬을 기획했다. 작사를 위해 많은 실력과 작사자들이 섭외됐지만 부처님의 일생을 제대로 가사로 표현해내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결국 찬불가 '내 마음의 부처' 등을 작사한 경험이 있던 아내가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곡을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완성작이 기대되는 '부처님 뮤지컬-Under the Bohi Tree'는 내년 즈음

새 장르 결합한 찬불가 선보여 주묵
'엄마의 얼굴' 등 뮤지컬 일부 소개도

완성해 미국에서 공연을 올린후 한국에서도 쇼케이스를 가질 예정이다.

공연에 관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육지장사에서 83년도 합창단을 조직하면서 불교음악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오늘 공연을 보며 이제 우리 불교음악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특히,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작곡가 이진구 씨가 미국으로 건너 갈 때 이런 곡을 만들기를 기원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작품이 무대 위에 올려지니 너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혜속 기자

김경미 사경전, 운현경 기획전시실서

창작사경 등 20여점 선보여

금운 김경미의 '감지 금니 사경전'이 8월 11일~16일 운현경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금니사경과 창작사경 등 20여점 선보인다.

김경미 작가는 "사경 예술의 극치를 이뤘던 고려시대 금, 은자 전통사경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해 온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다나무원료를 쪽염료로 선염(先染)해 제작한 전통감지에 금니로 쓴 사경 작품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창작 사경을 비



김경미의 사경작품 '묘법연화경'

롯해 묘법연화경 전7권(선장본), 법화경변상도,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권자본), 금강반야바라밀경(권자본), 지장경(선장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절첩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02)766-9090

정혜속 기자

동산불교대 심경 '내 마음속 풍경 사진전'

8월 11일~17일 나무갤러리서

동산불교대 사진반 심경이 8월 11일~17일 조계사 내 나무갤러리에서 '심경-내 마음속 풍경전'을 펼친다.

심경은 "이번 전시는 심경 회원들이 3년간 공을 들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지나쳤던 일상들을 카메라 앵글로 담아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일상의 감사를 담담히 작품으로 표현했다"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작가로는 김도연, 김정혜, 박성근, 이인자, 이정운, 전금자, 정윤희, 정형래, 조연희, 이은자 등이 참여해 마음의 풍경들을 보여준다. 김정혜의 '그랜드캐년'은 거대



심경 회원 이정운의 '기도'

한 자연의 웅장함도 내가 존재하므로 느끼는 것이니 나의 존재도 때로는 누구에게 굉장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정운의 '기도'는 지극히 합장을 한 여인의 모습 통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정혜속 기자



'무소의 뿔 제 4회 정기공연'에서는 법배, 국악, 재즈, 클래식 등을 결합 찬불가의 새로운 시도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연을 모두 마친 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관계자와 출연진들이 함께 무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신중명화

혜정법사님 초청 정토염불법회

2015. 9. 11~13 | 자인사

나무아미타불!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조계종 자인사에서 건봉사 정전(서현)스님 주관하에, 9월 11(금)-13(일) 2박3일간 대만과 중국에서 정토염불을 널리 펴시는 선지식이신 혜정법사님을 모시고 염불정진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염불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정토염불의 참된 이익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물: 세면도구, 옷가지(법복 및 취침복), 개인 물병
 동침금: 1박2일 - 5만원, 2박3일 - 10만원
 접수방법: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 확인 요망
 농협(예금주: 자인사) 351-0815-6450-13
 ※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808 자인사 ☎ (031)532-6141, 9453

〈정토종개론〉
 혜정법사의 가르침을 제자인 정종법사가 기록하고 정전스님이 번역(비밀파소통체)